



캐롤

아메리칸 패스토럴

지니어스

문학적인 삶, 영화같은 인생... '스크린 문학전'

CGV아트하우스 광주 터미널 8~14일 19편 상영

‘일 포스티노’, ‘에감은 틀리지 않는다’, ‘캐롤’ 영화와 문학 작품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다. 감명깊게 본 소설이 스크린으로 옮겨질 때 기대가 높아지고, 영화로 먼저 접한 작품에 감동을 받아 소설을 찾아 읽게 되는 경우도 많다. 소설과 영화 둘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영화와 문학이 각각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했는지 살펴보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문학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거나 문학 작품을 영화화한 작품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CGV아트하우스 광주 터미널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스크린문학전 2017’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모두 19편에 달한다. 특히 대부분의 작품이 2015년~2017년작으로 광주에서 미 개봉했던 작품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영화는 모두 4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영화, 시를 만나다=시적 영감을 자극하는 작품들을 모아놓은 섹션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파블로 네루다가 정치적 망명을 준비하던 시절을 중심으로 칠레의 현실을 우화적으로 담아낸 ‘네루다’가 관객들을 만난다. 또 네루다와 우편 배달부의 이야기를 통해 ‘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포스티노’도 상영된다.

그밖에 뮤지션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을 크리스찬 베일 등 6명의 배우가 그려내는 ‘아이 낫 데이’, 케이트 블란켓이 1인 다역을 통해 20세기를 대표하는 다양한 미학적 운동을 보여주는 ‘매니페스토’, 짐 자무쉬 감독, 조니 뎀 주연의 ‘데드맨’을 만날 수 있다.

◇거장은 틀리지 않는다=동시대 작가들의 원작을 영화로 옮긴 섹션이다. 맨부커상 수상 작가 줄리언 반즈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에감은 틀리지 않는다’,

문학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문학작품 영화화한 작품 시·전기 등 4개 섹션 광주 미 개봉작도 ‘눈길’

폴리처상을 수상한 필립 로스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이완 맥그리거의 감독 데뷔작 ‘아메리칸 패스토럴’을 상영한다.

또 홀로코스트와 2차 대전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뤄온 세르게이 로즈니치의 다큐멘터리 ‘아우스터리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줄리아타’ 등도 기대작이다.

◇문학적인 삶, 영화 같은 인생=실화와 전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생사를 보여주는 섹션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부부의 감동 실화를 담은 ‘주키퍼스 와이프’, 브래드 피트 제작으로 20세기 초 영국군인 출신의 탐험가 퍼시 포셋의 모험을 그린 ‘잃어버린 도시 Z’가 관객과 만난다. 또 에단 호크가 주연을 맡

은 ‘내사랑’,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통한 교감을 이야기하는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헤밍웨이와 피츠제럴드를 발굴한 출판인 맥스 퍼킨스와 당대 천재 작가 토마스 울프의 이야기를 담은 폴린 퍼스, 주드로 주연의 ‘지니어스’도 상영된다.

◇동시대의 흐름과 이슈=인종·여성·젠더에 관한 화두를 담아낸 섹션이다. 지난해 상영돼 화제를 모았던 케이트 블란켓, 루니 마라 주연의 ‘캐롤’을 비롯해 폴 베히렌 감독과 이자벨 위베르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엘르’,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로 유명한 소설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을 각색한 욱망과 파멸의 드라마 ‘레이디 맥베스’가 상영된다.

또 1960년대 NASA에서 일하며 구 소련 뿐 아니라 인종차별과도 씨워야 했던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은 영화 ‘히든 피겨스’와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한 흑인 아이가 소년이가 되고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문 라이트’가 관객들을 만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리멤버 루치아노 파바로티’

광주문예회관, 7일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해설 테너 하만택

‘하이 C의 제왕’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사진)는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꼽힌다.

올해 서거 10주기를 맞은 파바로티의 삶과 음악 세계를 조명하고, 그의 대표곡들을 성악가들이 직접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는 오는 7일 오후 6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리멤버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공연한다.

테너 하만택이 해설을 맡은 이번 공연에서는 파바로티의 어린 시절부터 성악가로의 전성기, 생전에 함께 자주 연주했던 조안 서덜랜드 등 성악가들의 이야기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파



바로티가 즐겨 불렀던 솔로곡과 이중창, 삼중창 등 다양한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 레퍼토리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흐르는 눈물’, ‘리콜레토’ 중 ‘여자의 마음’,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오 솔레미오’, ‘푸니쿨라 푸니쿨라’ 등이다. 테너 하만택·지명훈·이동명이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김소원이 함께한다.

청소년 무료, 일반 2만원(회원 30% 할인). 문의 062-613-83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재인의 운명’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집계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관련 서적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책 ‘문재인의 운명’이 2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면서 ‘문재인 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교보문고에 지난달 24~30일 도서 판매량을 집계해 발표한 베스트셀러 순위 따르면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이 2주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에스24의 6월 첫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문재인의 운명’ 특

별판은 3주째 정상을 유지했다. 특히 어린이 도서 ‘후 Who? Special 문재인’은 지난주보다 세 계단 오른 10위에 올랐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도 다시 주목을 받으며 15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유불 하라리의 ‘호모 데이우스’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요수 산문집 ‘부서불랑께’ 펴내

전라도방언은 언제 들어도 정감이 있고 감칠맛이 있다. 남도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소설 페하타령’의 김요수 작가가 최근 펴낸 ‘부서불랑께’는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산문집이다. 저자가 월간 ‘샬터’에 2년간 연재했던 글들과 신문, 잡지에 발표했던 글들을 묶은 것으로 읽고 나면 마음이 환해지는 이 이야기다.

저자는 서문에서 ‘부서불랑께’의 의미를 ‘뫓다’와 ‘버리다’가 뭉친 의미로 해석한다. 부여버리고 싶은 감칠한 마음이 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았다고 말한다.

‘뫓다’와 ‘버리다’가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결국은 마음의 문 제라고 덧붙인다. 즉 상반된 의미지만 버려야 하는 것들도 더러 쏘아 버려야 하는 대상으로 다가오고, 버리기보다 깊이 간직해야 하는 대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한편 김 작가는 담양 소재원 인근에서 오랫동안 ‘뫓소리 바람소리’ 카페를 운영했다. 지금까지 그림산문집 ‘뫓총아 뫓총아’, ‘소설 페하타령’ 3권 등을 펴냈으며 현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44기 정기 강좌 개설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44기 정기 강좌를 개설한다. 5일부터 내달 2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개최되는 43기 강좌는 문학, 철학, 영화, 클래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 참여 위주로 진행된다.

정규강좌는 월·화·토(오후 2시), 월·화·수(오후 7시 30분) 강좌로 나뉘어 진행

된다. 월요일에는 안철 음악해설가의 ‘일상에 클래식 선율을 다양한 영상음악 감상 및 해설’(오후 2시)과 명혜영 교수의 모라토리움인문학 ‘변경(marginal)에서 크게 외치다’(오후 7시 30분)가 진행된다. 화요일에는 인문덕후 시간 ‘나이의 힘·죽음이 삶에게’ 전천히 일기(오후 2시)와 김청우 박사의 시창작 교실 ‘시 창작, 이론에서

오늘~내달 2일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실기까지’(오후 7시 30분)가 열린다.

수요일 인문학 이론 시간에는 ‘몸의 철학, 메트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오후 7시 30분)을 토대로 강독과 토론이 진행된다. 토요일에는 무비토크 시간으로 ‘영화를 읽는 상상력-인도 영화 특별전’(오후 2시)이 열린다.

찾아가는 인문학은 수요일(오후 1시 40

분)과 금요일(오후 2시)에 열린다. 명혜영 교수가 각각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롯데문화센터에서 ‘지금, 여기,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모라토리움인문학 실습체험은 24일 오전 ‘고민하는 힘’을 주제로 ‘레일(nail) 토크(송정리에서 목포까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강좌에 따라 각각 1만원, 3만원, 4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 1층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 2~5층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 6층 743㎡ | 전문병의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회장 환경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000만원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100만원

문의 010-9203-6161